

수업료 못 낸 고교생 1년 새 2~4.5배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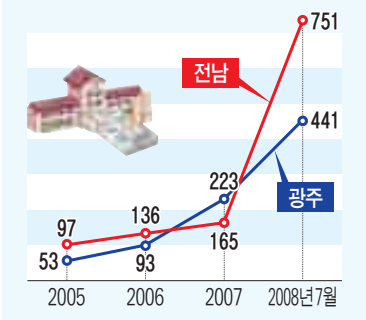
광주 441·전남 751명...서민들 경제난 심각

광주·전남지역 고교생 중 수업료를 1분기 이상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최근 1년 새 2~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서 수업료를 미납한 고교생은 441명으로 지난해 223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전남은 751명으로 지난해 165명에 비해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수업료를 못 낸 고교생은 광주의 경우 ▲2005년 53명 ▲2006년 93명, 전남은 ▲2005년 97명 ▲2006년 136명 등에 불과했으나 2008년 들어 급증해 최근 4년동안 각각 8.3배, 7.7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학생수 대비 미

광주·전남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추이



납률도 광주는 ▲2005년 0.1% ▲2006년 0.2% ▲2007년 0.4% ▲2008년 0.7%로, 전남은 ▲2005년 0.1% ▲2006년 0.2% ▲2007년 0.2% ▲2008년 1.1%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미납액은 광주 1억 2천921만9천원, 전남 1억4천114만1천원이다.

수업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생활 여건이 그만큼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의 자녀들은 면제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을 방치한다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미납 학생 수가 IMF 구제금융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휠체어와 함께 룸바를...

8일 광주시 서구 빛고를 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댄스스포츠 혼성 라틴 룸바 휠체어 부문에서 각 시·도 대표들이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환율 폭탄... 증시 패닉... '통제 불능'

<1,400원 육박>

<1,300 붕괴>

IMF '실물경제 침체 경고' 시장 불안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연일 시장을 강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4일째 폭등하고 증시는 급락한 가운데 IMF(국제

통화기금)가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66.90원 급등한 1,395.0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 1998년 9월23일

(1,402.00원) 이후 10년1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66.90원 이상 오른 것은 1998년 8월6일(70.00원)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대치이며, 최근 4거래일간 무려 208원이나 뛰었다.

이날 환율 급등은 국내·외 주가 폭락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

려화 매집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증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러 유동성 고갈에 대한 우려로 인해 '패닉(공황)'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9.41포인트(5.81%) 떨어진 1,286.69로 마감됐다. 이는 2006년 8월7일(1,289.54) 이후 처음으로 1,280선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0.48포인트(7.58%) 급락한 371.47로 장을 마쳤다.

이와 관련, IMF는 이날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에 직면하는 등 중대한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2015 U대회 유치활동 본격 '시동'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제도를 공식 선언한 광주시가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국내 후보 도시로 조기에 확정방기 위해 9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는 최근 2015년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의 구성과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있는 근거가

될 '2015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시장은 대회 유치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출연금과 보조금은 유치위원회 운영 및 유치활동, 홍보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9일 KOC에 2015년 U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키로 했다. KOC는 이에 앞서 각 시·도체육회에 이 날까지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미 2013년 U대회 유치를 도전한 경험이 있어 국내에서는 사실상 경쟁 도시가 없는 상

황이다.

이후 KOC와 광주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유치의향서 제출 시한으로 고시한 오는 15일 FISU에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FISU는 지난 9월 1일 유치신청 절차가 개시됐음을 알렸지만 아직까지 의향서를 제출한 도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광주시의회의 유치 동의절차와 국내 후보 도시로 정부 승인이 완료되면 유치위원회 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2015년 U대회 유치에는 올 상반기 도전 선언 이후 활발한 유치활동을 펴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를 비롯해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등이 의향을 내비쳐 광주를 포함 5~6개 도시가 경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유기농 한우' 한 마리 1,830만원

장흥서, 역대 최고가

유기농 한우 한 마리를 일반 한우 값의 3배인 1천830만원에 판매한 축산 농민이 있어 화제다. 주인 공은 지난해 12월 전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유기농 축산 인증을 받아 한우를 사육하는 장흥 음산면 월송리 월송농장의 한창분(43)씨. 한씨는 지난달 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서울 현대백화점에 7마리의

소를 납품했다. 이 가운데 840kg짜리 한우 1마리 가격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인 1천830만원을 기록했다.

한씨는 나머지 6마리도 평균 1천430만원씩에 판매했고 2차 납품한 10마리도 평균 가격이 1천366만원에 이르는 등 '대박'을 터뜨렸다. 현재 600kg 고급육 한우 암소의 경우 한 마리당 500만~6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백화점 측에서는 이 최고가를 일반 소비자에게 부위별로 최고 등급은 100g당 1만4천원선, 최저 등급은 9천500원선에 판매했다.

한씨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호밀 사료와 수단글라스 등 풀 사료를 먹여 키웠으며 특식으로 유기농 키워를 주기도 했다. 그는 일반 한우 농가들이 32개월간 사육비용 400만~500만원을 들여 200만원의 순이익을 내는 데 비해 유기농 한우 사육을 위해 38개월간 1천만 원대 비용을 투자해 최소 36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고 있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선부지구 M타워 508
062-361-1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062-367-3000

TOUR MALL
1600-0323

토속특산물 EVENT
1인용 318,000원
2인용 519,000원
3인용 719,000원
4인용 919,000원
5인용 1,119,000원

금프투어
15400-060-367-188 128
1인용 1,280,000원
2인용 1,780,000원
3인용 2,280,000원
4인용 2,780,000원
5인용 3,280,000원